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2016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국어(2016. 3. 19.) 해설 및 총평

남부 해원국어 고혜원

1. 문항별 분석

| 번호 | 내용 | 범위 | 번호 | 내용 | 범위 |
|----|-------------------------|------|----|-----------------|-----|
| 1 | 향찰 | 고전문법 | 11 | 서간문 | 비문학 |
| 2 | 훈민정음 | 고전문법 | 12 | 고유어 | 어휘 |
| 3 | 음운변동 | 문법 | 13 | 높임법 | 문법 |
| 4 | 언어의 기호적 특성 | 문법 | 14 | 고전 문학 | 문학 |
| 5 | 한자성어 | 한자 | 15 | - <정음사>, <청산별곡> | |
| 6 | 표준발음법 | 문법 | 16 | 띄어쓰기 | 문법 |
| 7 | 중의성 | 비문학 | 17 | 문장 | 문법 |
| 8 | 현대 소설 - 최일남, <흐르는 북> | 문학 | 18 | 서술어 자릿수 | 문법 |
| 9 | 한자어 | 한자 | 19 | 사이시옷 | 문법 |
| 10 | 외래어 표기법 | 문법 | 20 | 한자성어 & 속담 | 어휘 |

2. 분야별 분석

| 문법 | 비문학 | 문학 및 고전문법 | 어휘 및 한자 |
|----------------------|--------|-----------------------|---------|
| 9(45%) | 2(10%) | 5(25%) | 4(20%) |
| 단답형 지식 문제 12(60%) | | 박스형 지문 및 이해 8(40%) | |

3. 전체 총평

1. 국어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 및 고전 문법과 어휘 및 한자의 비중이 전체 45%로 매우 높고, 문법이 이와 같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기타 타 공무원 시험에 비해 **비문학이 매우 낮은 10%의 비중**을 보였다.
2. 박스형 지문 및 이해를 묻는 문항의 비중도 40%에 그쳐 전체 문제의 구성이 국어의 전반적 영역을 모두 다루되, **단답형 지식 문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의 구성 비율이 매우 높다.
3. 공무원 시험의 7급 영역에서나 만날 수 있는 **'향찰'의 구성방식과 같은 난도 높은 문제도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평정심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시험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4. 다만, 수업 시간을 그대로 옮겨다 둔 것 같은 문제의 구성에 깊은 감사의 마음 가득하다. **문제풀이에서 다른 동일한 문제와 동일 지의 출제는 물론이고, 이론이나 특강 시간에 다른 내용도 그대로 문제화되었다.** 다시 한 번 수업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업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소망한다.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1. 밑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 | |
|--|--|
| (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王 言光明理世也 (나)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삼국유사』 권 제2 「처용가」 중에서- |
|--|--|

- ① ㉠ : 弗矩内
- ② ㉡ : 入
- ③ ㉢ : 可
- ④ ㉣ : 羅

-정답 : ②

-[해설]

‘향찰’의 한자 차용 방식은 크게 ‘음차’와 ‘훈차’가 있다. ‘음차’는 한자의 소리(발음)를 빌리는 방식이고, ‘훈차’는 한자의 뜻(의미)을 빌리는 방식이다. ㉠~㉣ 중 ㉡만 ‘들다’란 ‘뜻’을 빌린 ‘훈차’의 방법이 쓰였다.

| | | | | | | | |
|------|---|---|---|---|--------|--------|----|
| | 夜 | 入 | 伊 | 遊 | 行 | 如 | 可 |
| 훈(뜻) | 밤 | 들 | 저 | 놀 | 다닐(니다) | 같을(다호) | 옳을 |
| 음 | 야 | 입 | 이 | 유 | 행 | 여 | 가 |
| 해석 | 밤 | 들 | 이 | 노 | 니 | 다 | 가 |

-[오답 정리]

나머지는 ‘소리’만을 빌린 ‘음차’의 방법이 쓰였다.

| | |
|---|--|
| [현대어 풀이] | |
| (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王 言光明理世也 ‘혁거(赫居)세왕’은 대개 향연(신라어)인데 혹은 ㉠불구내왕(弗矩内王)이라고도 했는데 세상을 빛으로 다스린다 하여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 |
| (나) 東京明期月良 동경 밝은 달에 夜㉡入伊遊行如㉢可 밤㉡들이 노니다㉢간 入良沙寢矣見昆 들어 자리를 보니 脚烏伊四是良㉣羅 다리가 넷이어㉣라. | |

| |
|--|
| [작품 해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나게 함. ■ 특징: ① 전해지는 향가 중 신라 최후의 향가 ② 고려 가요 ‘처용가’의 모태가 됨. |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다.
-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ㅅ, ㅇ’이다.
-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 라. 종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 마. ‘ㄱ’, ‘ㅌ’, ‘ㅍ’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 ① 가, 다
- ② 가, 나, 라
- ③ 나, 라
- ④ 나, 다, 마

-정답 : ④

-[해설]

- 나. 초성자(자음)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ㅅ, ㅇ’이다. ‘ㄷ’은 ‘ㄴ’의 가획자이다.
- 다. 중성자(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형하여 창제한 것이다. ‘조음기관(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한 것은 초성의 기본자이다.
- 마.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ㄱ, ㅌ, ㅍ’처럼 동일한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은 ‘각자병서(各字竝書)’이다.

-[오답 정리]

- 가. 훈민정음은 창제한 후 바로 반포한 것이 아니라, 3년간의 검토를 거친 후 반포했다.
- 라. 종성의 글자는 초성의 글자를 가져와 썼다. 이를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한다.

[참고]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마칠 종, 소리 성, 다시 부, 쓸 용, 처음 초, 소리 성)
 종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는 말. 이 말은 삼성(三聲)인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규정이다.

3. 다음 중 음운 변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체 : 부엌 [부억]
- ② 축약 : 붙여 [부쳐]
- ③ 탈락 : 담가도 [담가도]
- ④ 첨가 : 피어도 [피여도]

-정답 : ②

-[해설]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모음축약(㉠ 주어 = 쥐)’과 ‘자음축약(ㄱ, ㄷ, ㅂ, ㅈ + ㅎ = [ㅋ, ㅌ, ㅍ, ㅊ])’이 있다.

②의 ‘붙여(붙이어 = [부티어 = 부치어 = 부쳐 = 부처])’는 ‘ㅌ’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만나 ‘ㅊ’으로 교체된 것이므로, ‘축약’이 아니라 ‘교체’의 예이다. 구개음이 아닌 ‘ㅌ’이 구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개음 ‘ㅈ’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에 ‘구개음화’라 한다. 나타난 음운 현상은 ‘구개음화, 단모음화’ 현상이다.

-[오답 정리]

- ① 음절 끝에서 ‘ㄱ’이 ‘ㄱ’으로 ‘교체’된 것이다.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이것은 ‘교체’에 해당한다.
- ③ ‘담그다’의 어간 ‘담그-’가 어미 모음 어미‘-아’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끝음절 ‘ㄱ’이 ‘탈락’한 것으로 ‘탈락’에 해당한다.
- ④ 단모음 ‘ㅣ’에 반모음 ‘ㅣ’가 더하여 ‘ㅍ’로 발음된 것으로, 나타난 현상은 ‘ㅣ’모음 순행동화이고, 동화에 속하고 넓은 범주의 ‘교체’ 현상이다.

4. 다음 중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자의성: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 ②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 ③ 언어의 사회성: 언어 내용과 형식이 일단 한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④ 언어의 분절성: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정답 : ④

-[해설]

‘규칙이 존재한다.’란 설명을 볼 때, 이는 ‘언어의 체계성(규칙성)’에 관한 것이다.
 ‘언어의 분절성’은 연속된 세계를 언어가 분절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호의 분절’과 ‘개념의 분절’이 존재한다. 한 문장을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 등으로 나누는 것은 ‘기호의 분절’에 해당하고, 무지개의 색처럼 연속적인 것을 ‘빨, 주, 노, 초, 파, 란, 보’ 등 7색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은 ‘개념의 분절’의 예이다.

-[오답 정리]

- ①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므로, 자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②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도 ‘생성, 변화,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가역성(可逆性)]는 말이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 ③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으로, 언중(言衆)에 의해 수용되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불가역성(不可逆性)] 말이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5. 다음은 한자 성어이다. ()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적절한 것은?

| |
|------------------|
| 累卵之() □()腹劍 |
|------------------|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鯨戰()死
南()一夢

- ① 稅, 蜜, 蝦, 稼
- ② 勢, 密, 瑕, 柯
- ③ 勢, 蜜, 蝦, 柯
- ④ 稅, 密, 瑕, 稼

-정답 : ③

-[해설]

勢 형세 세: ‘累卵之-’로 시작하는 말은 ‘누란지위(累卵之危)’와 ‘누란지세(累卵之勢)’가 있다.

첫 번째 빈칸에는 선택지에 존재하는 ‘勢(형세 세)’가 들어가야 한다.

蜜 꿀 밀: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밀’은 ‘蜜(꿀 밀)’이다. ‘密’는 ‘빹빹할 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두 번째 빈칸에는 ‘蜜(꿀 밀)’이 적절하다.

蝦새우 하: 세 번째 한자성어의 한자를 분석해보면, ‘고래(경), 싸움(전), 죽을(사)’이다.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에 해당하는 성어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새우’의 뜻을 가진 ‘蝦(새우 하)’가 들어가야 한다.

柯 : ‘남가일몽’의 중국 당나라의 순우분(淳于棼)이 술에 취하여 화나무의 ‘남쪽으로 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槐安國)의 부마가 되어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년 동안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유래를 살펴볼 때, 마지막 빈칸에는 ‘柯(가지 가)’가 적절하다.

-[오답 정리]

稅(세금 세), 密(빹빹할 밀), 瑕(허물 하), 稼(심을 가)

| [어휘] | |
|------------|--|
| 누란지세(累卵之勢) | 累卵之勢(여러 누, 알 란, 갈지, 형세 세)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구밀복검(口蜜腹劍) | 口蜜腹劍(입 구, 꿀 밀, 배 복, 칼 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 경전하사(鯨戰蝦死) | 鯨戰蝦死(고래 경, 싸움 전, 새우 하, 죽을 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으로, 강한 자끼리 서로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남가일몽(南柯一夢) | 南柯一夢(남녘 남, 가지 가, 하나 일, 꿈 몽)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

6.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맑다 [말따]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 ② 흉과 [흑꽈]
- ③ 넓다 [널따]
- ④ 밟다 [밥: 따]

-정답 : ①

-[해설]

맑다[말따→막따]: 겹받침 ‘ㄹ’의 대표음은 [ㄱ]이다.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를 제외하고는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맑다’의 표준발음은 [막따]이다.

cf. 맑고[말꼬] :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ㄹ ㄱ]으로 발음된다.

-[오답 정리]

② ‘흉’의 표준발음은 [흑]이다. 따라서 ‘흉과’의 표준발음은 [흑꽈]이다.

※ ‘어간+어미’의 구성인 ‘맑고[말꼬]’와 달리, ‘체언+조사’의 구성에서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했다하더라도 대표음을 ‘ㄹ’으로 발음할 수 없다. 체언은 항상 ‘ㄱ’이 대표음이다.

③ ‘래’의 대표음은 [ㄹ]이다. 따라서 [널따]는 표준발음이다.

단, ‘넓다’의 파생어는 ‘넓’의 대표음이 [ㅂ]이다. [예 넓적하다[넙찌카다], 넓죽하다[넙쭈카다]

④ ‘래’의 대표음은 [ㄹ]이지만, 예외적으로 ‘밟다’의 경우에만 [밥: 따]와 같이 ‘ㅂ’으로 발음한다.

7.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 ①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②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③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④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

-정답 : ④

-[해설]

비교 대상을 ‘나’와 ‘신문’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명확한 문장이다.

cf. 만약 ‘아버지는 나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란 문장이었다면,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 대상 비교인지, 정도 비교인지)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었을 것이다.

-[오답 정리]

① ‘보고 싶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선생님’을 주체로 해석하면 ‘선생님이 만나기 원하는 학생이 많다.’는 의미가 되고, ‘학생이’를 주체로 해석하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② 주어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나와 반장이 함께, 선생님을 찾아다녔다.’는 의미와 ‘나 혼자서,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③ ‘용언의 관형형V체언+의V체언’의 형태는 중의성을 갖게 된다. ‘수많다’가 수식하는 것이 ‘사람들’인지, ‘노력’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점(선택표)을 통해 의미를 제한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수많은’이란 말 자체에 ‘복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수접미사 ‘-들’을 붙인

‘사람들’의 표현도 잉여적이다.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복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중략>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 서클 아이들이 봉산 탈춤 발표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학교 축제의 하나예요.”

“그런데?”

민 노인의 물음에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복장단을 맡아 주셨으면 하구요.”

“뭐라구?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 본 적도 없구.”

“한두 번만 맞춰 보시면 될 건데요.”

“연습까지 하고? 아서라. 더구나 님 애비가 알면 큰일난다.”

“염려 마세요.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 냈구,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고요.”

“임마, 그건 너희들끼리 해도 되잖아. 나까지 끌어내지 않아도.”

“누가 그걸 모르나요. 자리를 더 좀 빛내 보자 이겁니다.”

“나는 무대나 안방에만 앉아 봤지, 넓은 마당에서는 복을 쳐 본 경험이 없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을 안 꺼냈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제 체면도 좀 봐 주셔야죠.”

“이 녀석들 보게. 애비는 애비대로 내 복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 자식은 또 복으로 체면을 세워 달라니 무슨 조हत속인지 어지럽다.”

“아버지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하자면 길구요. 이번 일은 꼭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뵈하지만, 제 판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바라.”

- ① 손자 ‘성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 ② ‘민 노인’의 아들은 ‘민 노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
- ③ ‘민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 ④ 손자 ‘성규’는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정답 : ④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해설]

제시된 작품은 최일남의 ‘흐르는 북’이다. ‘성규’는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이 아닌, 자신의 체면 등을 근거(‘아버지는 애비대로 내 북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 자식은 또 북으로 체면을 세워 달라니 무슨 조항속인지 어지럽다.’)로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오답 정리]

- ① 성규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체면’을 내세우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 ② 1문단의 서술을 볼 때, ‘민 노인의 아들’은 자신의 체면을 더 중시하고 있음(‘아버지는 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을 알 수 있다.
- ③ 성규와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애비대로 내 북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와 같이 말한 것을 볼 때, 민 노인은 아들 내외의 속내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설명]

- 주제: 예술과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과 그 극복
- 특징: ① 중심 소재인 ‘북’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줌.
② 갈등의 해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줌.

9. 다음 중 적절한 한자만 쓰인 것은?

- ① 이 무기는 辭呈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補給이 時急하다.
- ② 사건을 造作한 것이 경찰에 의해 發覺되었다.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濫用한 결과다.
-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告 辭를 答辭해라.
- ④ 이번 事件에 대해 한국 정부는 有感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답 : ②

-[해설]

②는 ‘사건을 꾸민 것(造作 조작)이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發覺 발각).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함부로 쓴(濫用 남용) 결과이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②의 한자는 모두 적절하다.

| | |
|--------|--|
| 조작(造作) | 造作(지을 조, 지을 작) 1)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들. 2)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3) 지어서 만들. |
| 발각(發覺) | 發覺(필 발, 깨달을 각) 숨기던 것이 드러남. |
| 남용(濫用) | 濫用(넘칠 람(남), 쓸 용) 1)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2)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오답 정리]

- ① 辭呈→射程: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보급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이 시급하다.’이 된다.

‘사정’은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射程(쏠 사, 한도 정)’으로 표기해야 한다.

| | |
|--------|---|
| 사정(辭呈) | 辭呈(말씀 사, 드릴 정) 벼슬아치가 벼슬을 그만두거나 말미를 받기 위하여 청원서를 내던 일. |
| 사정(射程) | 射程(쏠 사, 한도 정) 탄알, 포탄, 미사일 따위가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 |
| 보급(補給) | 補給(기울 보, 줄 급) 물자나 자금 따위를 계속해서 대어 줌. |
| 시급(時急) | 時急(때 시, 급할 급) 시각을 다룰 만큼 몹시 절박하고 급함. |

③ 答辭→踏査: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면 민속학 사전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답사해라.’이다. ‘답사’는 목적어 ‘고적을’을 볼 때, ‘방문하여 조사하다’란 말이므로, ‘踏査(밟을 답, 조사할 사)’로 표기해야 한다.

| | |
|--------|---|
| 자료(資料) | 資料(재물 자, 헤아릴 료) 1) 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 2) 만들거나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물자나 재료. |
| 사전(事典) | 事典(일 사, 법 전)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각각에 해설을 붙인 책. |
| 답사(答辭) | 答辭(대답 답, 말씀 사) 1) 회답을 함. 또는 그런 말. 2) 식당에서 환영사나 환송사 따위에 답함. 또는 그런 말. |
| 답사(踏査) | 踏査(밟을 답, 조사 사)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

④ 有感→遺憾: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이다. ‘유감’은 함께 쓰인 ‘유감의 뜻을 표하다’란 표현을 고려할 때,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遺憾(끼칠 유, 한할 감)’으로 표기해야 한다.

| | |
|--------|---|
| 사건(事件) | 事件(일 사, 물건 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
| 유감(有感) | 有感(있을 유, 느낄 감) 느끼는 바가 있음. |
| 유감(遺憾) | 遺憾(끼칠 유, 한할 감)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
| 단정(斷定) | 斷定(끊을 단, 정할 정)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10.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zigzag 지그재그 | ㉡ vision 비전 |
| ㉢ leadership 리더쉽 | ㉣ yellow 옐로 |

① ㉠, ㉡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② ㉠, ㉡

③ ㉢, ㉣

④ ㉤, ㉥

-정답 : ②

-[해설]

㉠ vision(비전→비전): 외래어는 표음주의에 따라 표기한다. 즉 ‘ㅈ, ㅉ, ㅊ’ 뒤의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비전’으로 표기한다.

㉡ leadership(리더십→리더십): [ʃ]가 [i] 모음 앞에 올 때에는 ‘쉬’가 아닌, ‘시’로 적는다. 따라서 ‘리더십’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정리]

㉢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zigzag[zigzæg]’는 ‘지그재그’로 표기한다.

㉣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적는다. 따라서 ‘yellow[jelou]’는 ‘엘로’로 표기한다.

11. 이 글을 쓸 때 세운 글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2학년 박○○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방송반 동아리 모임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모임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쭙 수 있어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모임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진로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 작가나 방송 제작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실은 대학 진학도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 학교 일로 바쁘시겠지만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답장은 편하신 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계절 변화를 환기한 후 안부를 묻는다.
- ② 선생님께 편지의 용건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 ③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므로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④ 선생님께 지난 과거 일을 말씀드리며 실수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

-정답 : ④

-[해설]

필자는 과거의 만남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만 언급하면서, 자신의 진로 상담을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나, 그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정리]

① 자기소개를 한 후,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란 말을 통해 계절 변화를 환기한 후,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와 같이 안부를 묻고 있다.

② '진로상담'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③ '선생님! 여러 학교 일로 바쁘시겠지만'란 표현을 통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란 말을 통해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영과 나는 소꿉친구다. 나는 수영을 언제부터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그래서 내일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고백할 생각이다.

- ① 가멸다
- ② 슬겁다
- ③ 몽따다
- ④ 곱삭다

-정답 : ③

-[해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란 뜻을 가진 말은 '몽따다'이다.

| | |
|------|---|
| [어휘] | |
| ① | 가멸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 |
| ② | 슬겁다 1) 집이나 세간 따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2)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
| ④ | 곱삭다 1) 옷 따위가 오래되어서 올이 삭고 질이 약해지다. 2) 젓갈 따위가 오래되어서 푹 삭다. 3) 풀, 나뭇가지 따위가 썩거나 오래되어 푸슬푸슬해지다. |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 ②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 : ②

-[해설]

밑줄 친 ‘모시다(모시고)’는 ‘데리다’의 높임어로,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말로 ‘객체높임법’에 사용되는 어휘이다. 위 문장에서는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②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정리]

-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 것은 ‘상대높임법’의 설명이다. ‘상대높임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은 ‘상대높임법’이다. ‘주체높임(주어를 높임)’이나 ‘객체높임(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임)’은 ‘청자’가 아닌, 문장의 성분을 높이는 표현이다.
-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높임법’이다. 한다.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p>(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존 디를 드디올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p> <p>(나) 어딤라 더디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익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p> |
|---|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낙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㉔드로라

14. 위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가) 작품에서 '감정이입'은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제시된 부분에서는 '대립적 이미지'가 드러난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정리]

- ① (가)는 '어기야 어강도리'를, (나)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백제가요인 '정읍사'이다. 행상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배경설화를 참고할 때, 더불어 제시된 본문의 '저재(시장에) 녀러신고요(가 계신가요)'로 볼 때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노래한 작품이 맞다.
(나)는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이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어디다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맞이려는 돌인가) /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노나)'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 작품 모두 원래는 민간에서 불렸던 노래로, 그 주제가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이 작품들은 구전되어 전해지다가 한글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15.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머리곰: '멀리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점그를세라: '저물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 ③ ㉢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드로라: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임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정답 : ④

-[해설]

㉔의 '드로라'는 '듣노라'란 뜻으로, '사슴이 장대 위에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혹은 산대잡희를 하는 광대 중 사슴으로 분장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떻게 해석하든 나타난 의미는 '생의 절박함'의 표현이다.

-[오답 정리]

① '-곰'은 '강조'를 뜻을 더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머리곰'은 '멀리멀리'란 의미다. 이는 화자의 간절함을 의미한다.

② '-르세라'는 '~할까 두렵다'란 의미이다. '저물다'는 '순탄하지 않다'의 수사적 표현이다. 따라서 '나의 마중 길, 임이 돌아오는 길, 나와 임이 함께 가는 인생길' 등이 순탄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화자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미다'는 '미워하다', '괴다'는 '사랑하다'란 뜻이다. 인간의 감정에 해당하는 둘 모두 부정했다는 점에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작품 설명]

(가)

■ 주제: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 특징: ① 현전하는 백제가요.

②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

(나)

■ 주제: ① 삶의 고뇌

② 실연의 슬픔

③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 특징: ① 율림소리를 사용하여 음악성이 돋보임.

② 반복과 상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현대어 풀이]

(가)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취 주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들고 계신 짐을) 놓으십시오.

당신 가시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나) 어디다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는 돌인가.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어 맞아서 울고 있노라.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나문재, 굴,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겠노라.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역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 ②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 ③ 우리는 어릴 망정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 ④ 철수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정답 : ③

-[해설]

어릴 ∨ 망정 → 어릴망정: '망정'은 의존명사가 아니라, 어미 '-르망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어리다'의 어간 '어리-'와 붙여 써야 한다.

-[오답 정리]

- ① '떠난 지'의 '지'는 '동안'을 뜻을 가진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 것이다.
'그녀뿐이다'의 '뿐'은 '오직'의 뜻을 가진 '보조사'이고 '이다'는 '서술격조사'이므로, '그녀'와 붙여 쓴 것이다.
- ② '법'은 체언이므로, '대로'는 '보조사'이다. '체언'과 '조사'는 붙여 써야 한다.
'조사하다'란 뜻을 가진 '찾아보다(합성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 것이다.
- ④ '깨뜨리다'는 본용언이고, '버리다'는 보조용언이므로 띄어 쓴 것이다.
'는커녕'은 '보조사' '는'과 '커녕'이 결합한 형태로, '혼나기'에 붙여 쓴 것이다.

17.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것은?

- 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 ②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렸다.
-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정답 : ④

-[해설]

제시된 문장은 모두 겹문장이다. 겹문장은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는 두 문장이 이어진 형태 '운동을 매일 하다. + 그런데도 건강이 안 좋다.'의 관계로 문자의 앞, 뒤를 교체하면 문맥이 어색해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정리]

나머지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문장 성분이 되므로, 안은문장이다.

- ① '꽃이 피다.'란 문장이 '봄'을 수식하고 있다. 즉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 ② '재물을 보다'란 문장이 'ㄱ/음, 기'의 형태의 명사처럼 쓰인, 명사절 안은문장이다.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다'란 문장이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명사절 안은문장이다.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18.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 ①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 ②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 ③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 ④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정답 : ②

-[해설]

‘주다’는 ‘누가(주어) 누구에게(부사어) 무엇을(목적어) 주다’란 꼴로 쓰인다. 즉 ‘주어, 필수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정리]

나머지는 모두 2개의 문장성분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① ‘아니다’는 ‘누가(주어) 무엇이(보어) 아니다’의 꼴로 쓰인다. 즉 ‘주어, 보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
 - ③ ‘먹다’는 ‘누가(주어), 무엇을(목적어) 먹다’의 꼴로 쓰인다. 즉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
 - ④ ‘읽다’는 ‘누가(주어), 무엇을(목적어) 읽다’의 꼴로 쓰인다. 즉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
- ※ ‘먹다’와 ‘읽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19.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사이시옷 표기가 된 합성어의 예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 | | | |
|---|-----|-----|
| | ㉠ | ㉡ |
| ① | 긷병 | 긷밥 |
| ② | 넷가 | 뱃길 |
| ③ | 자릿세 | 전셋집 |
| ④ | 아랫집 | 아랫방 |

-정답 : ④

-[해설]

- ㉠ 순우리말 ‘아래’와 ‘집’의 합성어이다.
- ㉡ 순우리말 ‘아래’와 한자어 ‘방(房)’의 합성어이다.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오답 정리]

- ① ㉠ 순우리말 '귀'와 한자어 '병(病)'의 합성어이다.
㉡ 순우리말 '귀'와 '밥'의 합성어이다. ※ 껏밥 = 껏불
- ② ㉠ 순우리말 '내'와 '가'의 합성어이다.
㉡ 순우리말 '배'와 '길'의 합성어이다.
- ③ ㉠ 순우리말 '자리'와 한자어 '세(貰)'의 합성어이다.
㉡ 한자어 '전세(傳貰)'와 순우리말 '집'의 합성어이다.

20. 다음 ㉠~㉣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識字憂患 ㉡ 角者無齒 ㉢ 螳螂拒轍 ㉣ 得隴望蜀 |
|--|

- ① ㉠ 아는 것이 병이다.
- ② ㉡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 ③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④ ㉣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정답 : ④

-[해설]

㉣의 '득룡망축(得隴望蜀)'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림'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 그런데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는 '세상사는 늘 돌고 돈다.'는 말이므로, 그 뜻이 통하지 않는다. '욕심이 끝이 없음'을 뜻하는 '득룡망축(得隴望蜀)'과 의미가 유사한 속담으로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가 있다.

-[오답 정리]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란 속담은 '운이 나쁜 사람도 좋은 수를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은 사람도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말로, 세상사는 늘 돌고 돈다.'는 말이다. 이는 한자성어 중 '새옹지마(塞翁之馬)'와 의미가 통한다.

※ 塞翁之馬(변방 새, 늙은이 옹, 갈 지, 말 마)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 | |
|------|---|
| [어휘] | |
| ㉠ | 식자우환(識字憂患) 識字憂患(알 식,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 아는 것이 병이다 :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여 좋으나, 무엇이나 좀 알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많아 도리어 해롭다는 말. |

고차원!! 기적의 해원국어!! 해원국어가 합격이다!!!

| | | |
|---|------------|---|
| ㉠ | 각자무치(角者無齒) | <p>角者無齒(뿔 각, 사람 자, 없을 무, 이 치)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 입으로 무는 호랑이에게는 받는 뿔이 없다는 뜻으로,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무엇이든 다 갖추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
| ㉡ | 당랑거철(螳螂拒轍) | <p>螳螂拒轍(사마귀 당, 사마귀 랑, 막을 거, 바퀴 자국 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
| ㉢ | 득룡망촉(得隴望蜀) | <p>得隴望蜀(얻을 득, 고개 이름 룡, 바랄 망, 촉나라 촉) 룡(隴)을 얻고서 촉(蜀)까지 취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p> |